

#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이론에 관한 연구

이 수 호\*

## A Study on the Theory of Credit Rationing in the Customer Relation

Soo-Ho Lee\*

### 〈目 次〉

#### Abstract

#### I. 서 언

#### II. 고객관계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1. 요구불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  
이론

2. L\*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  
이론

3. 대출수요 탄력성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III. 대부자·차입자 간의 교섭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IV. 한국의 은행대출시장에 있어  
이론적용가능성

1. 신용할당의 제도 및 관행

2. 자율적 신용할당의 행태

3.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의  
관행

#### V. 결 언

참고문헌

### Abstract

In the financial market of Korea various types of credit rationing have been existed. Among them credit rationing under the external restriction and credit rationing in the customer relation are prevalent. These types of the autonomous credit rationing are created under the condition of financial repression by government. Banking corporations endeavor to increase their revenue and to make sure of security under the credit regulation and interest regulation. Consequently preponderant loan behavior is generalized by the credit rationing in the customer relation and this behavior resulted in inefficiencies in the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But in accordance with financial liberalization credit rationing behavior of bank corporation will be changed. Specially credit rationing in the customer relation will be also changed and this phenomena will bring about improvements in the effectiveness of the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In this thesis the theory of credit rationing in the customer relation is analyzed and verified by

\*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the institution and the usual practice of Korean financial market. And the behavioral changes in the credit rationing in the customer relation and the effects of these changes are investigated.

## I. 서 언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시장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신용할당<sup>1)</sup>이 항상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투자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금융자금에 대해 저금리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다. 개발수요에서 비롯된 이러한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상태에서 부족한 대출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졌다. 그 결과 관치금융<sup>2)</sup>의 환경조성과 이를 통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강화가 주요한 금융정책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금융억압은 대출시장에 있어서는 타율적 신용할당<sup>3)</sup>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타율적신용할당이란 은행의 대출자금공급이 은행의 경영목표에 따른 자산구성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타율적 신용할당의 근저에는 금융시장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부족한 자금의 효율적운용을 통해 경제성장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바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경제개발과정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산업정책적<sup>4)</sup>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타당성과 효과의 면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타율적신용할당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자금배분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했으며 은행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저해하였다. 특히 타율적 신용할당에 의한 부실채권의 증가와 함께 은행기업의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제약으로 인해 수익성·안정성의 저하와 이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은 금융시장에 있어 정부규제가 초래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산업의 상대적 낙후화 경향은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산업이 개방화·국제화되어가는 환경속에서 경쟁력을 회복하여 여타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자율화가 진행되어가

- 1) 신용할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 졌으나 본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Jaffee의 정의 "이자율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 상업대출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것"에 따르고자 한다. Jaffee, D.M., *Credit Rationing and Commercial Loan Market*, John Wiley & Sons, 1971, p. 16
- 2) 정부는 1961년 6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은행지분을 확보하고 민간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은행을 사실상 공기업화하여 은행경영을 직접 통제하였다. D.C.Cole, 박영철, 한국의 금융발전, KDI, 1984, pp. 169-170
- 3)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학위논문에서와 같이 신용할당의 분류를 자율적, 타율적신용할당의 두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수호, 한국 은행대출시장의 신용할당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 pp. 3-4
- 4) Rao, D.C., "Selective Credit Policy : Is It Justified and Can It Work ?", *Journal of Finance*, 1972, pp. 473-475

고 있다. 금융자율화<sup>5)</sup>는 금융산업의 제반측면에서 정부규제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가격과 수요·공급이 결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대출시장의 신용할당의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과 같은 타율적 신용할당이 축소되고 은행의 최적자산구성행위에 따른 자율적 신용할당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금융자율화에 따라 일반화되어 갈 것인 신용할당의 구체적인 유형이 어떠한 것이며 이것이 대출공급과 나아가 자원의 효율적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은행의 경영성과, 즉 수익성과 안정성의 확보 및 경쟁력강화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금융산업이 발전되었고 금융시장이 효율적인 선진국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신용할당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차입자와 대부자간의 정보불균형<sup>6)</sup>으로 말미암아 이자율조정에 의해서만은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차입자에 따른 이자율조정의 범위를 줄이고 차입자의 신용이나 고객관계에 따라 대출여부와 규모를 차별화하는 신용할당을 병행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할당의 기준으로서 차입자의 상환가능성<sup>7)</sup>, 은행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대고객관계등이 활용된다. 그 외에도 은행산업의 특성상 정부규제의 완전한 해소는 기대할 수 없으며 산업조직상 과점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외생적제약에 따라 신용할당<sup>8)</sup>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반 신용할당행태의 분석을 위한 이론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시장에 있어서도 크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할당이 존재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경영에 있어 타율적 할당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율적할당의 기준이 마련되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부실채권방지를 위한 담보요구에 의한 신용할당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외 대출규모 및 이자율규제하에서 실효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구속성예금에 따르는 신용할당과 은행거래를 통한 기업의 대은행기여도에 따른 신용할당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은행의 대고객관계에 따른 신용할당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가를

- 5) 1988년 12월 5일과 1993년 11월 2일의 1,2단계의 금리자율화조치와 함께 정책금융폐지·축소 등의 정책조치가 진행되거나 강구되어지고 있다.
- 6) 이러한 유형의 신용할당에 관한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은 Jaffee, D.M. & Russel, T., "Imperfect Information, Uncertainty and Credit Rationing", QJE, Nov. 1976, pp. 651-666, Stiglitz, J.E. & Weiss, A.,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ER, June 1981, pp. 393-410 등이 있다.
- 7) 이러한 유형의 신용할당에 관한 이론으로는 Hodgman, D.R., "Credit Risk and Credit Rationing", QJE, May 1960, pp. 258-278, Chase, S.B., "Credit Risk and Credit Rationing : Comment", QJE, May 1961, pp. 319-327 등이 있다.
- 8) 이러한 유형의 신용할당에 관한 이론으로는 Jaffee, D.M. & Modigliani, F.,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AER, Dec. 1969, pp. 851-890, Azzi, C.F. & Cox, J.C.,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Comment", AER, Dec. 1976, pp. 911-917 등이 있다.

설명한 이론들을 해석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은행대출에 있어 이러한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제도와 관행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율화·개방화에 대응하여 대고객관계에 따른 은행의 신용할당행태가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신용할당행태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고객관계에 근거한 신용할당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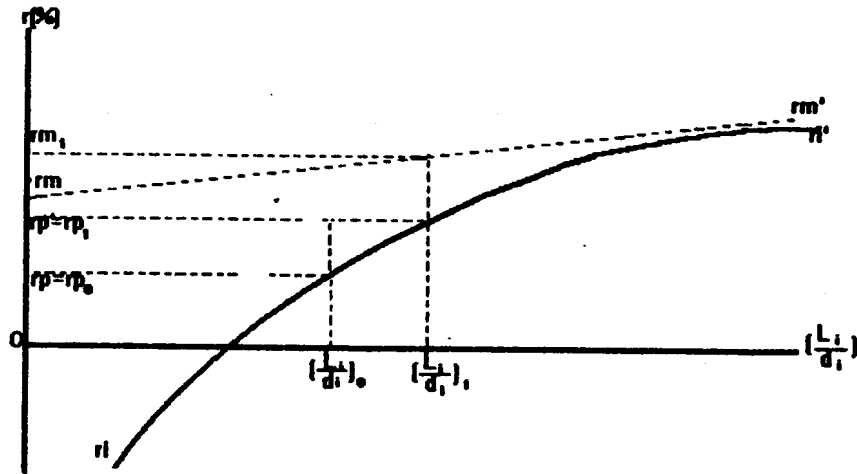
### 1. 요구불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대출결정에 있어 고객관계의 중요성은 Hodgman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이후 Kane, Malkiel, Mason 등에 의해서 우량고객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용할당이론이 전개되었으며 최근 Blackwell, Santomero등은 비우량고객관계를 중심으로 대출결정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거래기간, 친숙도 등의 관계가 신용할당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는 요구불예금이나 당좌대출 등과 상호연관되며 이를 통해 대출실효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에서 수반되는 직·간접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융인축시에는 거래기간이 길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이 우대된다는 것이다.

Hodgman은 은행의 대고객관계중 제도적·구조적요인에서 비롯되는 은행과 고객간의 예금관계, 특히 요구불예금 관계를 중심으로 신용할당을 설명하였다.<sup>9)</sup>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자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은행간 예금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그 보상으로 금융인축시 대부자금을 안정적인 예금고객에게 배분하며 그 과정에서 예금유치에 별유인을 갖지 못하는 비우량 고객에 대해서 신용할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예금확보경쟁에 있어서 예금차입자에 대해서는 비예금차입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시켜 고객을 유인하는데, 경쟁결과 합의되는 이 우대금리는 비예금고객에게 지급되는 시장금리에서 예금으로부터 얻는 순수익을 공제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고객  $i$ 의 평균요구불예금액을  $d_i$ , 예금의 인출시에 은행이 부담하는 활동비용을  $c_i$ 이라하고, 고객  $i$ 의 예금 중 수익자산에 투자할 부분의 비중은 은행의 총수익자산/총예금액, 즉  $L/D$ 의 평균비율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자율을 시장이자율  $r_m$ , 최저대출 이자율  $r_l$ , 우량금리  $r_u$ 라 할때 비예금차입자에게 적용되는  $r_m$ 과 예금차입자에게 적용되는  $r_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r_i = r_m - \frac{r_m d_i (L/D) - c_i}{L_i} \quad (2-1)$$

9) Modigliani, D.R., "The Deposit Relationship and Commercial Bank Investment Behavi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61, pp. 257-268.



(그림 II-1)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여기서  $L$ 은 총대출금,  $L_i$ 는  $i$ 번째 예금차입자에 대한 대출액이며 우변의 둘째항의 분자는  $i$ 번째 예금주로부터 얻는 은행의 총수입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과 같다.

여기서,  $\frac{L_i}{d_i}$ 가 증가함에 따라  $r_i$ 는  $r_m$ 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이  $r_m$ 과  $r_i$ 사이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은행은 예금획득을 위해서 실제대출이자율  $r_m$ 이  $r_i$ 에 이르기 까지 낮추어 은행의 순수입이 0이 될때까지 경쟁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대금리  $r_p$ 가 하한으로 결정된다. 만일 우대금리가  $r_{p1}$ 에서 결정되었다면 비예금차입자에게는  $r_{m1}$ , 예금차입자에게는  $r_{p1}$ 으로 이자율이 적용되고 비예금차입자에 대한 대출과 같은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가능액은  $L_1$ 이 된다. 이와 같이 일단  $r_p$ 가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면 비예금차입자에 대한 시장이자율로의 대출과 적어도 같은 수익성이 있는 대출이 되기 위한 대출액對 예금액, 즉  $L_i/d_i$ 의 비율에는 상한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고객  $i$ 가  $L_0$  ( $L_0 < L_1$ )의 대출을 받는다면 이 대출은 시장이자율에 의한  $L_0$ 만큼의 대출보다  $\frac{L_0}{r_{p1}r_m}$ 만큼 은행이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율차이는 고객  $i$ 의 평균적인  $L_i/d_i$  비율에 의존하는 것이며 예금자마다 이 비율은 달라지므로 은행의 순수입은 우량기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은 은행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결국  $L_0$  차입자에 대한 다른 은행의 추가 대출제안 유인이 발생하므로 고객상실의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결국  $L_1$ 수준에서 대출이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우대금리는 단일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우량기업 중에서도 은행이 특히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들은 여전히 우대금리 이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우대금리를 설정하여 차입자의 예금에 대한 은행간 경쟁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완전하지 못하여 여기에 구속성 예금의 최소한도가 정해져야 실질적인 이자율인하의 최대한도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은행은 우량고객에게 기타서비스를 제공하여 비가격경쟁을 시도하며,

이에 따라 긴축시에 우량고객들이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예금차입자가 추가적인 대부를 원하거나 보상적예금잔고의 한계점에 도달한 한계우량고객이 있다고 할 때 만일, 금융 긴축시기가 아니라면 은행은 적정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수준에서 한계우량고객에게 대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축시에는 한계내 우량고객으로부터 대부요청이 예상될 경우에는 비예금차입자는 물론이고 한계우량고객에게도 신용할당을 하게 된다. 한계내우량고객은 예금을 통해 은행에 암묵적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보다 우선적으로 선호된다. 이때 일반고객이나 한계우량고객들이 이자율을 상승시킴으로서 한계내우량고객들과 경쟁할 수 있지만, 은행이 이들 모든 차입자에게 대출을 한다면 자금부족으로 대출에 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한계내예금고객을 다른 은행에 빼앗길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자율을 인상시켜 준다하더라도 한계적 우량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없으며 여기서 신용할당이 발생한다. 만일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우량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별없이 모든 차입자들은 이자율로서 경쟁하므로 신용할당은 없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신용할당은 제도적 요인에 의한 고객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Jaffee는 Hodgman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반고객이 우량고객에게 대응할만한 높은 이자율을 제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고, 높은 이자율에서 일반고객의 수요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균형이자율에서 수요가 0이 됨을 뜻하고 이는 명백히 이자율할당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10)</sup>

## 2. L\*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Kane과 Malkiel은 Hodgman과 달리 복합적으로 고려된 고객관계가 은행의 장기적인 효용측면에서 선별되어, 은행의 효용을 높이는 고객에게 대출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1)</sup> 그들은 은행의 포트폴리오모형에 예금변동가능성과 장기적 이윤에 대한 고려를 도입해 L\*의 정도에 기인한 신용할당을 설명하였다. 즉 L\*대출을 기준으로 L\*대출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때 총체적위험, 즉 기대이윤의 분산이 커지고 장·단기 기대이윤수준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L\*대출이 관련된 예금차입자를 상실함에 따라 장기적 예금을 상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L\*정도에 의거해 L\*정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신용을 할당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Hodgman의 신용위험은 총체적위험의 한 부분일 뿐으로 대출거부에서 발생하는 고객관계 단절의 위험이 더 커다란 문제가 되므로 긴축시에는 은행이 자금을 일군의 안정적인 대규모 예금거래자에게 재배분한다는 것이다. Kane과 Malkiel은 예금액변동이 총체적 위험을 늘린다고 주장하고 예금액변동에 따른 자산의 획득 및 매

10) Jaffee, D.M., 1971, p. 30.

11) Kane, E.J. & Malkiel, B.G., "Bank Portfolio Allocation, Deposit Variability and the Availability Doctrine", Q.J.E., Feb., 1965, pp. 113-134.

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거나 예금액유입과 자산수익율이 서로 반비례한다면 예금액변동은 기대이윤수준도 감소시키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L\* 예금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L\*예금이란, 예금액의 현재규모, 앞으로의 증가전망, 예금액변화의 예상패턴, 예금의 거치기간, 거치의 강도, 경기변동에 따른 고객의 평균적 차입액의 기대치, 고객에 대한 은행의 대출잔액과 은행대출에 대한 총체적 초과수요간의 상관계수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된 벡터로서 L\*대출에 직면한 은행이 자산의 위험·효용측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금이다.

따라서 L\* 대출요청자란 은행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예금자인 동시에 차입자이며, 이들의 행동은 은행의 기대 이윤 및 총체적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L\* 대출에 대한 은행의 판단에 있어서는 대출을 행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고객관계의 강화에서 얻어지는 이윤이 대출액/정부증권 투자액의 비율의 증가에서 오는 위험의 증가를 상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은행이라면 L\* 대출요청자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대출요구 이전보다 명백히 효용이 낮아진다해도 대부거절 역시 효용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L\* 대출요청에 응하는 것이다.<sup>12)</sup>

Q<sub>0</sub>를 은행고객관계를 나타내는 질적 지수라 한다면 대출은 Q<sub>0</sub>를 강화시키고 대출거부는 Q<sub>0</sub>를 약화시켜 L\*예금의 기대수익, 분산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frac{\partial E_i}{\partial Q_0} > 0, \quad \frac{\partial \sigma_i^2}{\partial Q_0} \leq 0 \quad (2-2)$$

여기서 E<sub>i</sub>는 고객 i의 예금의 기대치 이고, σ<sub>i</sub><sup>2</sup>은 고객 i의 예금의 기대분산이다. U를 은행의 자산구성에 따른 효용함수라 하면,

$$\frac{dU}{dQ_0} = \frac{\partial U}{\partial E_i} \cdot \frac{\partial E_i}{\partial Q_0} + \frac{\partial U}{\partial \sigma_i^2} \cdot \frac{\partial \sigma_i^2}{\partial Q_0} > 0 \quad (2-3)$$

이 성립하여 고객관계 개선에 따라 은행은 명백히 유리해진다. 대출요구가 거절되면 Q<sub>0</sub>가 악화되어 예금액의 변동정도가 더 심해져 전체예금액의 분산이 증가하여 결국 총체적위험이 증가하므로 기존자산구성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이 증가하면 대출액 / 정부증권투자액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은행의 효용은 감소한다. 이와같이 은행이 L\* 대출요구를 받게 되면 은행의 기존균형상태는 깨어진다. 대출거부의 경우 고객상실로 효용이 감소하며, 대출을 할 경우도 위험/이윤 비율이 높아져 어느 경우든 교란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대출여부의 결정은 은행의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12)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실제로 기대이윤상승 및 총체적 위험의 감소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 고객관계 단절에서 오는 위험이 실제로 대출을 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초과하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L^*$  대출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고객관계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현재의 자산보유기간 종료에서부터 최종계획시계의 종료까지를 장기라 하고, 각 보유기 ( $h=1,2,\dots,u$ )에 정부증권의 수익율은  $g_u$ 라 하며,  $h$ 기의 고객  $i$ 가 가진 예금액의 평균잔고가  $D_h$ 라 한다면 장기기대이윤  $E(L, R, \Pi_i)$ 는

$$E(L, R, \Pi_i) = \int_0^{\infty} \sum_{h=1}^u (g_h) \cdot D_h f(D_h | Q_0) dD_h = \sum_{h=1}^u g_h \cdot E(D_h | Q_0) \quad (2-4)$$

(단,  $f$ 는  $D_h$ 의 밀도함수)

$D_i$ 가  $\alpha_i$ 의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2-4)식에서

$$E(L, R, \Pi_i) = \sum_{h=1}^u g_h (1 + \alpha_i)^h D_0 = D_0 \sum_{h=1}^u g_h (1 + \alpha_i)^h \quad (2-5)$$

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적용되는 수익율이 대출 및 정부증권 수익율의 평균치가 되므로 (2-5)식은 장기적 이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금자  $i$ 에게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 모든  $h$ 에 대하여  $Q_h$ 는 하락하므로 장기적 기대이윤가치는 하락하며, 그 정도는 고객  $i$ 의 예금잔고의 기대성장율  $\alpha_i$ 에 비례한다. 결론적으로  $L^*$  대출요구에 대한 거절은 단기적 이윤의 분산, 즉 총체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장단기 기대이윤의 감소를 가져 온다. 따라서, 예금 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대출신청에 우선하여  $L^*$  대출신청에 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긴축시  $L^*$  대출신청자들 중에서도 신용어베일러빌리티가 작은 경우에는 고객관계와 장기적 이윤가능성에 의해 신용할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같이 Kane과 Malkiel에 따르면 신용할당의 기준은 채무불이행의 위험만이 아니라 대부거절에서 오는 고객상실위험도 매우 중요하므로 은행은  $L^*$ 특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장기적 이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3)</sup>

### 3. 대출수요탄력성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Blackwell과 Santomero는 Hodgman, Kane and Malkiel, Mason이 우량고객의 존재에 따라 비우량고객에게 먼저 신용이 할당된다고 주장한것과는 달리 오히려 대출수요의 탄력성이 큰 우량고객이 은행으로서는 가장 이윤이 작은 고객으로 먼저 신용이 할당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sup>14)</sup> 이

13) 실제 이논문에서 Kane과 Malkiel이 주장하고자 한 바는  $L^*$  대출의 존재에 따라 호경기의 대출억제는 매우 어려우므로 어베일러빌리티 이론에서 주장하는 동결효과는 강력하지 못하며, 신용할당이나 나타나더라도 그 규모는 작다는 것이었다.

14) Blackwell, N.R. & Santomero, A.M., "Bank Credit Rationing and the Customer Relation", J.M.E. 19, 1982, pp. 121-219.



들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독점적인 은행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고객은 대출수요의 탄력성이 큰 우량고객과 탄력성이 작은 비우량고객으로 분류하고, 대출의 위험이나 질 등은 이자율에 의해 조정되어 무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은행의 총 이윤 (P)는 대출에서 얻는 수익과 대출에 있어 두 고객에게 동일하게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이이므로 다음과 같다.

$$P = \sum r_i L_i - r_c \sum L_i = r_o L_p + r_m L_m - r_c (L_p + L_m) \quad (2-6)$$

여기서  $r_i$ ,  $r_p$ ,  $r_m$ 은 각각 대출이자율, 우량고객대출이자율, 비우량고객대출이자율이며,  $L_i$ ,  $L_p$ ,  $L_m$ 은 각각에 대한 대출액이며,  $r_c$ 는 대출과 무관한 일정한 한계자금비용이다.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이자율은 (2-6)식을  $r_i$ 로 미분하여 0으로 두면

$$\frac{\partial P}{\partial r_i} = L_i + r_i \frac{\partial L_i}{\partial r_i} - r_c \frac{\partial L_i}{\partial r_i} = 0 \quad (2-7)$$

이고, 균형에서의 최적대부량  $L_i^*$ 는

$$L_i^* = (r_i^* - r_c) \left( - \frac{\partial L_i}{\partial r_i} \right) \quad (2-8)$$

이다. 총체적 대출수요탄력성은 정의에 의해  $\eta_i = - (r_i / L_i) (\partial L_i / \partial r_i)$  이므로 (2-8)식에 대입하여 최적이자율  $r_i^*$ 을 구하면

$$r_i^* = \eta_i r_c / (\eta_i - 1) \quad (2-9)$$

가 된다. (2-9)식에서  $\frac{\partial r_i^*}{\partial \eta_i} < 0$ 이 되므로 탄력성이 낮은 비우량고객일수록 최적이자율이 높아져 결국 비우량고객에게 높은 대출이자율이 부과되고 탄력성이 낮은 우량고객의 최적이자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제 은행이 어느 일정한  $r_i$ 에서 할당을 한다고 할 때 대출에 따른 은행이윤의 변화는,

$$\left( \frac{\partial P}{\partial L_i} \right)_{r_i^* = r_i - r_c} > 0 \quad (2-10)$$

가 되어 최적수준에서의 신용할당(대출감소)은 은행의 이윤을 감소시키게 된다. 신용할당 비용( $\psi_i$ )은 식(2-9)의  $r_i^*$ 에 식(2-10)를 대입시키면  $\psi_i = r_c / (\eta_i - 1)$ 이 되고,  $\partial \psi_i / \partial \eta_i < 0$ 이 되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다 탄력적인 고객일수록 신용할당의 비용이 작아지고 따라서 먼저 할당되며 탄력성이 낮은 비우량고객일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고 은행의 독점적이윤을 크게 한다.

은행의 다기간 모형에 있어서도 은행의 대부행태에 따라 고객은 다음기의 대부수요를 달리하며 은행은 이 대부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이윤을 현재가치의 합으로 극대화하려한다. 즉 예금과 대부

사이에는 현재예금과 대부행태가 초기수준에 의해 영향받는 시간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모형을 다기간으로 확장해도 역시 수요의 탄력성이 크고 보다 강한 고객관계일수록 신용할당 비용이 작아져서 은행은 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우량고객을 우선 할당하려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량고객이 할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출금 1달러당  $\lambda_p$ 를 은행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은행은 비우량고객을 할당하려 할 것이고 비우량고객도  $\lambda_{np}$ 만큼을 은행에 지불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량고객이 신용을 얻기위한 조건은  $\lambda_p - \lambda_{np} > \psi_{np} - \psi_p$ 가 된다. 그런데,  $\partial\lambda/\partial r < 0$ 이기 때문에  $\lambda_p - \lambda_{np} < 0$ 이고  $\phi_{np} - \phi_p > 0$ 이므로  $\lambda_p - \lambda_{np} < \phi_{np} - \phi_p$ 가 된다. 따라서 우량고객은 신용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성공하지 못하여 우선 할당된다.

그러나 Blakwell과 Santomero는 신용할당 비용을 고려함에 있어 탄력성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때 탄력성은 가격변수에만 의존함으로써 기타 위험 및 비가격조건등의 영향을 무시하여 종래이자율할당에 의한 주장에 가까우며, 신용할당의 영향에 대해서만 치중함으로써 그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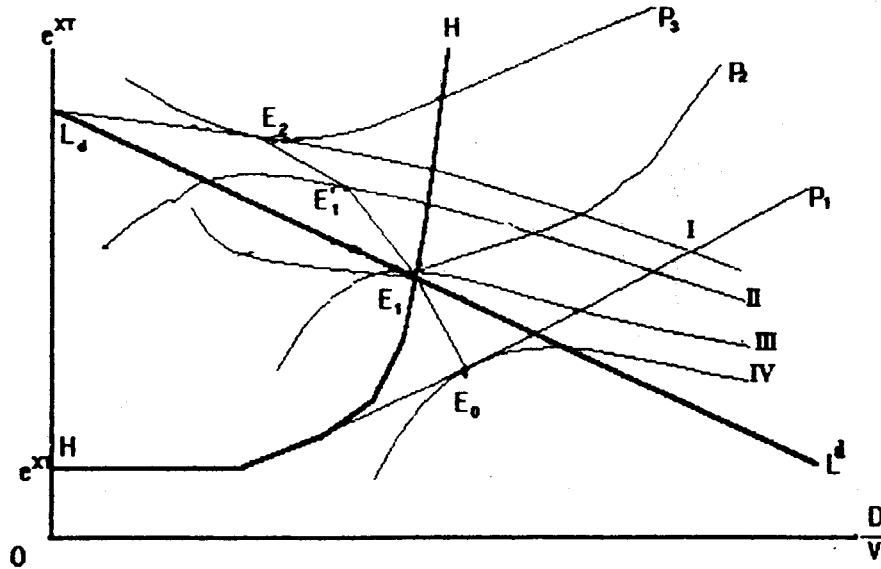
### III. 대부자 차입자 간의 교섭에 근거한 신용할당이론

Kalay와 Rebinovitch는 은행의 증가하는 무이윤 오피곡선과 공급과 무관한 차입자의 선호구조에 의한 상호간의 교섭에 따라 신용할당이 나타난다고 하고 이렇게 결정된 신용할당은 은행의 시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유일하게 결정된다고 주장했다.<sup>15)</sup>

그들은 차입자의 담보대출이 유럽콜옵션(European Call Option)과 같은 성격을 가졌으므로 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대부자의 기말가치 극대화 공식에서 오피 곡선을 도출하는데 이 곡선이 대출이자율에 대해 단조증가함수임을 보이고 있다.<sup>16)</sup>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네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첫째, 벌과금 없이 空賣(short sale)가 가능하며, 둘째, 거래비용, 세금, 배당금지급이 전혀 없으며, 셋째, 무위험 이자율이 존재하고 옵션시장은 연속적으로 활동하며 주가변동도 연속적이며, 넷째, 담보가치는 로그분포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차입자는 자신의 레버리지비용과 대출이자율 요인에 관한 선호구조에 따라 우하향하는 대출수요곡선을 가진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1)과 같다.

15) Kalay, A. & Rebinovitch, R. "On Individual Loan's Pricing, Credit Rationing and Interest Rate Regulation," J. F., Sep. 1978, pp. 1071-1085.

16) Jaffee & Modigliani의 경우 후방굴절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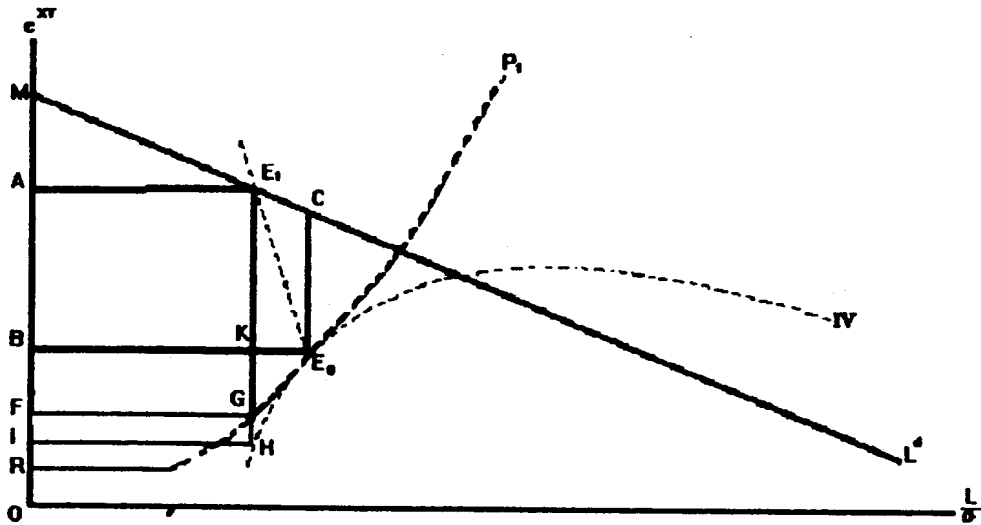
(그림 III-1) 쌍방교섭에 따른 파레토최적

(그림 III-1)에서 횡축은 차입자의 레버리지비율로서  $D$ 는 지분( $y$ )과 부채 ( $L$ )의 합을 나타내며, 종축은 이자율 요인으로서  $X$ 는 즉각적인 할인율,  $T$ 는 시간단위를 나타낸다.

$P_1, P_2, P_3$ 는 대부자의 무차별곡선이며 오퍼곡선  $HH$ 와 최저점에서 교차된다.  $HH$ 는 이자율 요인의 단조 증가함수이며,  $I, II, III, IV$ 는 차입자의 등효용무차별 곡선으로 수요함수  $L^d$ 와 각각 극대점에서 교차한다.

Jaffee(1972)도 이와 유사한 그림을 통하여  $E_0, E_1, E_2$ 곡선을 파레토최적케적이라 하였으나, Kallay와 Rabinovitch는  $E_0$ 점만이 파레토 최적이며 다른 점들은 대부자의 시장독점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가치보다 적게 대출하게 되어 잘못된 자원 배분을 초래하므로  $E_0, E_1, E_2$ 곡선을 계약 곡선이라 칭하고 있다. 즉, 대출이 소득효과가 없다면 계약곡선상의  $E_0$ 점 이외의 점에서  $E_0$ 로 이동함으로써 대부자의 이윤은 감소시키지 않고 차입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III-2)에서  $E_1$ 에서  $E_0$ 으로 이동한다면 대부자는  $AE_1GF$ 만큼의 이윤이 감소하고 차입자는  $AE_1CE_0B$ 만큼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소비자잉여는 무차별곡선을 따라 불변하므로  $AE_1, E_0B = AE_1HI$ 이므로 차입자는 대부자의 감소분을 완전히 보상하고 추가적인 잉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입자 대부자간의 교섭에 의해 완전한 보상계획이 마련된다면 시장경쟁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E_0$ 에서 대출이 행해진다. 그런데  $E_0$ 에서는 초과수요가 나타나 신용할당이 발생하며 이는 영구적 균형신용할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자율규제는 차입자의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규제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림 III-2) 영구적 균형신용할당

#### IV. 한국의 은행대출시장에 있어 이론적용가능성

##### 1. 신용할당의 제도 및 관행

한국의 은행대출시장에서는 최적화 경영활동을 통해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구성의 합리화와 이에 따른 은행의 자율적인 신용할당의 요소와 함께 은행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금융과 같은 타율적인 신용할당이 혼재해 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신용할당 지원 업종을 선정하고 여기에 준해서 은행이 기업을 선정, 할당하는 창구지도 방식의 정책적 성격의 자율적 할당이 지시금융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의 대출환경을 고려한다면 은행경영의 합리적 결과인 순수한 자율적 신용할당의 규모는 작으며 그 비중은 은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정책금융만을 취급하는 개발금융기관이나 특수은행에 비해서는 일반은행이 순수한 자율적 신용할당의 규모가 크다.

그리고 정책자금할당, 정책성자금할당, 자율상업자금할당에 있어 재원의 조달은 정책자금할당의 경우는 전액 정부 또는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으며 정책성자금할당의 경우에는 일부는 은행조달자금으로 나머지는 한은 재할인이나 차입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아 조성한다.<sup>17)</sup> 그리고 자율적 상업자금할당의 경우는 모든 자금을 은행 스스로 조달하여 공급한다. 따라서 은행자금의 운용에 있어 자금 조달비용은 정책자금이나 정책성자금의 경우 매우 낮으며 은행의 자금운용금

17)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 규정집, 1993. 1.

중소기업은행, 기금대출실무가이드, 1992. 9.

〈표 IV-1〉 금융자금할당 행태

	정 책 금 융	정 책 성 자 금	상 업 금 융
재 원 조 달	◦ 각종기금· 재정자금 차 입 100%	◦ 중앙은행 자금차입 40~ 60% ◦ 은행자체 조성 60~40%	◦ 은행자체 조성 100%
대 출 대 상 기 업 선 정	◦ 각종기금· 정부	◦ 대상업종은 정부 결정 ◦ 은행은 대상기업 결정	◦ 은행
대 출 대 상 선 정 기 준	◦ 경제발전 계획상 우선 지 원 부문	◦ 경제계획상 우선지원 부 문 ◦ 은행의 기업별 신용평가	◦ 은행의 기업별 신용평가 ◦ 은행에 대한 기업의 기여 도 평가
금융기관별비중	◦ 일반은행 30% 내외 ◦ 특수은행 30~40% ◦ 개발금융기관	◦ 일반은행 20% 내외 ◦ 특수은행 30~40% ◦ 개발금융기관	◦ 일반은행 50% 내외 ◦ 특수은행 30% 내외 ◦ 개발금융기관
재원조달비용	◦ 재정차입기금 차입금리( 7% 내외)	◦ 중앙은행 할인율(7% 내 외)	◦ 예수금리(10% 내외)
대 출 금 리	◦ 7% 내외	◦ 7% 내외	◦ 대출금리(14% 내외)
금 리 차 이 (수 익 율)	◦ 0.5~1.5%	◦ 0.5~1.5%	◦ spread
담 보 여 부	◦ 유	◦ 유	◦ 유
사 후 관 리 및 상 환 책 임	◦ 대출은행	◦ 대출은행	◦ 대출은행

리와의 차이가 순수익이 된다.

이와 같이 각 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성을 통하여 축적된 대출 재원을 크게 세가지 성격의 대출자금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 개략적인 금융자금 할당의 특성을 보면 〈표 IV-1〉과 같다. 표에 따르면 은행의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수익성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출 행위는 자율적 상업금융에 불과하고 기타 정책금융이나 정책성 금융은 그 타율적 성격으로 인하여 은행의 수익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대출자금의 사후관리의 책임이 모두 대출은행에 있어 상환불능등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의 과중한 비용부담발생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2. 자율적 신용할당의 행태

예금은행은 자체조달자금중 정책적 자금할당 부분이외의 자금을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금운용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자금운용의 대상은 크게 대출과 유가증권투자 및 기타 자산획득으로 나누어지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액중 자율적인 자산구성을 위한 자금의 운용규모가 제약되어 있어 활발한 유가

증권 및 기타자산획득 행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자산구성의 과정에서 대출자금의 공급규모가 결정되며 대출자금의 공급에 있어서도 다시 수익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업종별·기업별 최적할당 방식이 수립되어 대출공급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우선 이 대출자금 공급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용규정<sup>18)</sup>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 규정에는 크게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과 한국은행여신, 한은 및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금융기관예금지급준비, 유동성조정 및 외화여수신에 관련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은행의 대출 공급 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과 여수신이율관련 규정이다.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는 여신운용세칙,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운용 세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신운용세칙은 은행으로 하여금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자금운용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① 여신의 지역별·부문별 균등배분, ② 사치성소비나 투기조장 등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여신억제, ③ 기술개발·생산성향상을 위한 여신장려, ④ 소요자금규모와 신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여신공급 및 용도의 유용여부와 신용상태변경과악통보, 여신효율성·건전성유지, ⑤ 비업무용부동산의 담보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조장 방지 및 동업자 상호 보증이나 신용보증에 의한 여신확대 ⑥ 차입의존도가 큰 기업 및 계열 기업군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노력 및 직접금융 유도로 과다여신 억제 ⑦ 여신과 관련한 예·적금 가입장요지양 ⑧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IV-2〉 여신관리제도의 목표와 수단

목 표	여신관리세칙상의 수단
대출편중완화	대출한도 관리
경제력 집중완화	기업투자 전문승인제 금지분야 설정 자구의무 부과
부동산 취득억제	사전승인, 금지제도 자구의무 부과 비업무용 처분촉구
재무구조 개선	자기자본 지도비율 산정 자구의무 부과시 차등 개선불응기업에 제재 부동산취득 억제
업종 전문화	주력업채 제도
기업여신 정보관리	주거래은행제도
기업경영지도감독	주거래은행제도

18) 한국은행 자금부, 통화신용정책 운용 규정집, 1993, 1.

그외에 동규정에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세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금융기관 대출금 상위 5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 기업체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금융기관별로 대상기업군에 대한 대출금점유율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여신상황과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며 현저히 악화되었을 경우 여신을 억제한다. 그외에도 부동산 취득억제 및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무리한 차관도입억제등 계열기업군에 대한 규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국은행의 여신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sup>19)</sup>

이상과 같은 여신관리제도하에서 각 은행은 대출자금을 기업별로 할당한다. 그런데 한은 및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관련 규정에서 보여지듯이<sup>20)</sup> 우리나라의 금리는 항상 규제되고 있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여신 대상 기업체에 따라 차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대출의 수익성에 있어 제약요소가 은행의 신용할당에 있어 몇가지 특징적 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첫째는, 은행이 대출에 있어 표면금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여 실효금리를 상승시켜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구속성예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수익성보다 위험회피에 치중하여 신용대출보다는 담보에 의한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담보로서는 부동산담보가 가장 보편적이며 백지어음이나 인보험의 관행도 병행되고 있다.<sup>21)</sup> 셋째로는, 수익성 증가를 위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기 보다는 위험회피를 위하여 장기적인 대고객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3.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관행

이상과 같은 금융관행이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할당행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심적인 은행대출자금 할당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은행의 여신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와 각 기업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분석의 두가지로 구성된다. 즉, 은행은 여신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에서 나타나는 기업별 등급과 평점에 기초하고 여기에 당해기업의 은행거래에 따르는 은행의 자금 운용 및 수익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대출자금의 할당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신대상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은행채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 금리자율화에 따라 기업별 차등금리의 적용을 통한 은행 수익성 제고의 지침이 된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담보대출관행을 완화시켜 건전한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은행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한다. 그리고 차입기업의 은행에 대한 직접기여도평가는 은행자금의 조달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을 선별하여 장기적으로 대고객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9) 전경련 조사부,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방안, 1992, pp. 16.

20) 1993. 11. 1일의 2단계 금리자율화조치가 은행에 의해 실질적으로 활용되면 대출형태에 있어 금리 규제의 영향을 크게 완화될 것이다.

21)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기업의 재무행태와 기업관행에 관한연구, 1992, pp. 43-67.

〈표 IV-3〉 은행의 기업채 종합평가

평가항목				배점		
업종별평가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재무상태	자본구성	자기자본비율		15	
		유동성	유동비율		15	
		수익성	총자본순이익율		10	
		안전성	고정장기적합율의 역		5	
		소계			50	
	사업현황 및 전망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5/2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5/2	
		생산성	부가가치율		10/3	
			노동생산성 증가율		10/3	
소계			20			
계			70			
평가항목				배점		
기업별평가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사업현황 및 전망	사업전망(수익성)	추정매출액 순이익율	10/4		
			추정매출액 증가율	10/4		
			거래조건 및 판매전망	10/4		
		소계			10	
	은행과의 관계	거래신뢰도	연대 및 대지급발생여부	10/4		
			채무상환능력	상환력수준	10/4	
			기업경영상당	경영상당정도	10/4	
		소계			10	
	경영형태 및 경영자 인적사항	경영방식	기업공개여부	대기업	중소기업	
5/4				-		
소계			5/2	-		
경영능력		경영성과	5/4		5/2	
			소계			5/2
경영자 인격 및 종업원관계		경영자업력	업체상장여부	5/6		
			노사관계	5/6		
	근로조건		5/6			
	직원채용방식		5/6			
소계			5	5		
계			30			
합계			100			



기업의 신용도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제정한 기업체 종합평가표 작성요령에 따라 각 은행은 이에 준하여 여신대상기업의 평점을 작성한다. 크게보아 기업체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업의 특성은 당해기업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및 전망과 은행과의 관계 및 경영형태, 경영자의 능력 등이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경영활동의 수익성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이 중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비율, 총자본 순이익율 등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사업현황 및 전망에서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는데 각종 회전율과 같은 활동성, 매출액증가율과 같은 성장성,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같은 생산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다. 그의 사업현황 및 전망에서는 매출증가를 추정하고 품질 및 기술개발상태를 평가하며 은행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거래신뢰도나 상환능력, 경영상담의 정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기타 기업 공개여부 등 경영방식이나 경영자의 경영능력, 종원업과의 관계등이 추가적으로 평가된다.<sup>22)</sup>

이러한 평가에 의한 결과 나타난 평점으로서 은행은 각 기업을 등급화하고 여신여부를 결정하는데 은행감독원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평점 40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금지하고 있다.

<표 IV-4> 기업체 신용 평점·등급 및 지원여부

등 급	평 점	지 원 구 분
A 급	80 - 100점	최 우 선 지 원
B 급	60 - 79점	우 선 지 원
C 급	45 - 59점	지 원
D 급	40 - 44점	억 제
E 급	40점 미만	금 지

또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며 자산규모 5억 이상, 최근 2년간의 무결손 등 기타 각은행의 구비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우량업체로 선정하여 동일인당 대출한도 상향적용, 우대금리적용, 발행어음의 신용도 제공, 신용대출시 入保면제등의 혜택을 주어 주거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용평점에 따라 업체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신용한도내에서는 추가담보취득없이 신용을 취급하며 신용한도내의 대출취급분에 대해서는 관련직원에 대해 면책한다.<sup>23)</sup> 이러한 기업체종합평가표는 한국은행이 그 양식을 매년 정하여 각 은행에 통보하고 각 은행은 이에 준하여 대출대상업체별로 신용평가와 함께 여신관리를 실시한다.

그런데 종합평가 이외에도 각 은행은 은행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대상기업의 은행에 대한 직접기여도를 평가하여 여신운용에 참고한다. 기여도 평가는 기업이 은행의 자금운용 및 수익이나 자금조달 및 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익기여율이나 자금조달 및 원가, 대출금 총수익율, 자금기여율을 활용한다. 이 평가의 주요 요소를 보면 기업의 은행예금으로인한 은행자금조달의 편이성, 즉 자금기여율과,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기업의 외환 매

22) 한국은행자금부, 1993년 기업체 종합평가표 작성요령, 1993. 6.

23) 중소기업은행여신기획부, 여신실무가이드, 1992. 2, pp.49-51.

매에 따르는 외환수수료 수익과 기타은행거래에 따른 수수료수익 등 수익기여율 등이다.

〈표 IV-5〉 고객직접기여도 평가표

자금운용 및 수익				자금조달 및 원가					
항		목		항		목			
대출금	기타대출			차입자금					
투자	인수사채	수신		수신	당좌예금				
	투자주식				가계종합예금				
외환수익	수출실적				보통예금				
	수입실적				저축, 자유저축예금				
기타수익	외환수수료				기업자유예금				
	팩토링수수료				정기적금 기타				
	보증료				수입부금				
	신탁보수료				양도성예금증서				
	B. C 기타수수료				중소기업금융채권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비원가성자금				
		신탁(은행계정활용)							
		예금지급준비금							
자금기여액		자금의존액							
		순수익							
구	분	전전분기( /4분기)	전분기( /4분기)	연간( ~ )					
수익기여율	%	등급	등급	%	등급	등급	%	등급	등급
대출금총수익율	%			%			%		
자금기여율	%	등급	등급	%	등급	등급	%	등급	등급

이상과 같이 은행은 자율적 상업금융의 할당에 있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사업성, 자본구성, 담보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은행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대출을 결정한다. 이는 한은 재할인 적격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45점, 대기업 50점 이상으로 재할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기준을 등급화하여 AAA부터 D등급에 이르기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기업의 등급을 산정하여 기업별 여신관리에 적용하는 은행도 있다.<sup>24)</sup>

이러한 우리나라 은행기업의 신용할당행태는 자율적할당의 경우 신용위험에 근거한 신용할당과 더불어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의 경우는 은행의 장기적인 효용의 증가라는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자율적 대출운용의 규모가 크게 제약받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

24) 산업은행 기업분석부, 기업체 평가표, 1992. 7. p. 121.

력의 일환이라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 결과 대출에 있어 구속성예금의 관행이 일상화되어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이고 금융자원의 왜곡배분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 V. 결 언

지금까지 은행의 자율적 신용할당행태와 특히 그 중에서도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및 관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신용할당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기업평가에 의한 대출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은 자율적신용할당중 차입자지분에 의한 신용할당<sup>25)</sup>을, 총자본순이익율은 차입자 수익분포특성에 근거한 신용할당을<sup>26)</sup>, 유동비율 및 예금총액은 요구불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 및 L\*예금에 근거한 신용할당을<sup>27)</sup> 은행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용종합평가의 작성이나 고객직접기여도의 산출을 통한 대출결정 행위는 대부수요탄력성에 근거한 신용할당<sup>28)</sup>과 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속성예금의 일상화는 대부자·차입자간의 교섭에 근거한 신용할당<sup>29)</sup>과 암묵적 계약에 근거한 신용할당을 나타내고 있고 담보대출의 관행은 담보 및 지분 요구에 의한 신용할당<sup>30)</sup>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자율적신용할당의 관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에 의한 신용할당과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이라 보여진다. 특히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의 경우에는 은행의 자산구성에 있어 자율적신용할당이나 이자율규제와 같은 외부적제약요인이 강했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상황에 있어서는 은행기업이 실효이자율을 높이고 신용위험 및 신용조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기은행에 대해 다양한 예금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각종 외환거래를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증대와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우량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대출시장에 있어서는 앞의 Hodgman과 Kane and Malkiel의 이론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다소 높아졌으나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표 V-1〉참조)과 지역간여신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산업구조고도화에 필요한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25) Smith, V.L.,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Some Generalizations", AER, 1972, pp. 477-483.

26) Freimer, M. & Gordon, M.J., "Why Bankers Ration Credit", QJE, Aug.1965, pp. 397-416.

27) Kane, E.J. & Malkiel, B.G., 1965.

28) Blackwell, N.R. & Santomero, A.M., 1982.

29) Kalay, A. & Rabinovitch, R., 1978.

30) Azzi, C.F. & Cox, J.C., 1976.

〈표 V-1〉 30대 그룹대출금 추이 (단위 : 억원, 구성비 %)

	어 음 할 인	지 급 보 증	합 계
1989 말	78,643(60.9)	22,491(46.0)	101,134(56.8)
1990 말	96,731(42.3)	32,035(48.4)	128,766(43.7)
1991 말	85,629(42.2)	45,147(52.3)	130,776(44.4)
1992. 8	68,068(37.8)	56,393(57.8)	124,461(44.8)

\* ( )안은 총여신중 30대그룹의 구성비

그러나 앞으로 금융자율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대출규모의 확대 및 이자율 조정범위의 확대가 진행되어 앞의 Blackwell & Santomero 와 Kalay & Lebinovitch 의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형태의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여신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은행자금의 효율적배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금융자율화에 따른 이러한 대고객관계에 의한 신용할당행태의 변화와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 자금의 효율적배분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은행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분석작업이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계량모델이 고안되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관수, 신용배분과 금융자율화의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85.12.
- 김창준, '신신용가용성 이론과 금융정책', 한국경제연구, 3, 1989. 12 pp. 182-196.
- 박관석, '신용할당이 기업의 고정 투자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 논문집 9, 1 : 1988, pp. 169-181.
- D.C.콜, 박영철, 한국의 금융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심지홍, '신용시장의 수량할당과 효율적 신용계약', 산업연구, 대전대, 1991, pp. 170-171.
- 전경련,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방안, 1992. 11
- 최진봉, '불균형 대출시장 모형에서의 은행의 대출공급 행태분석', 금융경제연구 3, 1990. 12, pp. 1-21.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기업의 재무행태와 기업관행에 관한 연구, 1992. 12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규정집, 1993. 1
- 한국은행 자금부, 1993년 기업체 종합평가표 작성요령, 1993. 6
- 중소기업은행, 기금대출실무가이드, 1992. 2
- \_\_\_\_\_, 여신실무가이드, 1992. 2
- 산업은행 기업분석부, 기업체 평가표, 1992. 7
- Arzac, E.R., Schwartz, R.A. & Whitcomb, D.K.,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Some Further Results', A.E.R., Sep. 1981, pp. 735-737.

- Azzi, C.F. & Cox, J.C.,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Comment', A.E.R., Dec. 1976. pp. 911-91.
- Blackwell, N.R. & Santomero, A.M., 'Bank Credit Rationing and the Customer Relation', J.M.E. 19, pp. 121-219.
- Freimer, M. & Gordon, M.J., 'Why Bankers Ration Credit', Q.J.E., Aug. 1965, pp. 397-416.
- Fried, J. & Howitt, P., 'Credit Rationing and Implicit Contract Theory', J.M.C.B. 12, No.3, 1980, pp. 471-487.
- Hodgman, D.R., 'Credit Risk and Credit Rationing', Q.J.E., May, 1960, pp. 258-278.
- Jaffee, D.M., Credit Rationing and Commercial Loan Market, John Wiley & Sons, 1971
- Jaffee, D.M. & Modigliani, F.,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69, p. 851.
- Kalay, A. & Rabinovitch, R., "On Individual Loan's Pricing, Credit Rationing and Interest Rate Regulation", Journal of Finance, Sep. 1978, pp. 1071-1085
- Kane, E.J. & Malkiel, B.G., 'Bank Portfolio Allocation, Deposit Variability and the Availability Doctrine', Q.J.E., Feb. 1965, pp. 113-134.
- Jaffee, D.M.,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Further Notes', A.E.R., June 1972, pp. 484-488.
- Jaffee, D.M., Credit Rationing and the Commercial Loan Market, John Wiley & Sons Inc., 1971.
- Koskela, E., 'Credit Rationing and Non-Price Loan Terms : A Re-examination', Journal of Banking & Finance, Sep. 1983.
- Modigliani, D.R., "The Deposit Relationship and Commercial Bank Investment Behavi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61, pp. 257-268
- Rao, D.C., "Selective Credit Policy : Is It Justified and Can It Work ? ", JF, 1972, pp. 473-475
- Sealey, C.W.Jr., 'Credit Rationing in the Commercial Loan Market : Estimates of a Structural Model Under Conditions of Disequilibrium', Journal of Finance 34, June, 1979, pp. 689-702
- Smith, V.L., 'A Theory and Test of Credit Rationing : Some Generalizations', A.E.R., 1972, pp. 477-483.
- Stiglitz, J.E. & Weiss, A.,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E.R., June, 1981, pp. 393-410

- Q.J.E. : Quartely Journal of Economics  
R.E.S : Review of Economic Studies  
I.E.R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E.J. : Economic Journal  
J.F. : Journal of Finance  
J.M.E.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B.F. : Journal of Banking & Finance  
J.M.C.B : Journal of Money, Credit, Banking